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1년 도시혁신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1. 12.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도시혁신연구회 소개	1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9
1. 연구용역 추진	9
2. 현장방문	23
3. 대외협력활동	26
4. 월례회의	30
III. 활동후기	35
IV. 언론보도	55
V. 참고자료	65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도시혁신연구회 소개	1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 -1. 도시혁신연구회 소개

☐ 단 체 명 : 도시혁신연구회

☐ 소속의원 : 차승연(대표), 주이삭(간사), 이경선 의원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도시혁신연구회	
연구내용	주제	도시재생 및 도시생활문제 개선	
	목적	-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 - 도시에서의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활동기간		2019년 05월 15일 ~ 2022년 06월 30일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1년)	총 액	금사백만원(금3,100,000원)	
	산출내역	- 행사비 : 1,000천원 - 견학비용 : 700천원 - 업무추진비 : 7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제작비 : 700천원	

☐ 연구목적

-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
- 도시에서의 쓰레기, 에너지, 먹거리 등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도시재생 및 도시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서대문구 조례 제·개정 추진

□ 연간 연구계획

- 도시재생 및 도시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는 일회성으로 마칠 수 없는 부분으로 8대 의원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해마다 도시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주제를 정하여 집중활동을 하려고 함
- 연도별 세부연구계획

- 2019년 : 서대문구 도시재생, 쓰레기, 에너지, 먹거리 정책 검토
- 2020년 : 도시재생 정책 연구(생활SOC 등)+도시생활문제 개선 연구(쓰레기)
- 2021년 : 도시재생 정책 연구(생활SOC 등)+도시생활문제 개선 연구(기후위기대응, 쓰레기)
- 2022년 : 도시재생 및 도시생활문제 개선 연구 갈무리

□ 2021년 세부 활동계획

- 주요내용
 - 서대문구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 및 생활SOC 사업 검토
 - ‘서대문구형 기후위기대응 지역전략’ 의회 차원의 지원 및 정책연구
 - 2020년 ‘쓰레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 계속 진행
- 주요활동
 - 월례회의, 전문가 특강(2회), 정책토론회, 주민간담회(2회), 현장견학 등
 - 정책연구용역 계획 : ‘서대문구형 기후위기대응 지역전략’
 - 서대문구 환경 관련 조례 검토 및 제·개정
 - 분리배출 철저, NO플라스틱 운동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활동

○ 월간 계획

3월	월례회의, 2021년 정책연구용역 논의
4월	월례회의, 주민간담회
5월	월례회의, 전문가 특강, 정책연구용역 간담회
6월	월례회의, 정책토론회
7월	월례회의, 중간 활동 점검
9월	월례회의, 주민간담회, 현장견학
10월	월례회의, 전문가 특강, 정책연구용역 최종 발표
11월	월례회의, 연구회 활동 결과 정리
12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활동 예산안

활동구분	예산	활동내용
행사비	1,000천원	- 전문가 강연(2회) - 정책토론회(6월)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비용	700천원	- 우수사례 견학(9월)
회의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700천원	- 월례회의(8회) - 주민간담회(2회)
연구결과 자료제작비	7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제출(12월)
예산 총액	3,100천원	

I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월	활동내역
3월	○ 3. 15.(월) 3월 월례회의
4월	○ 4. 20.(화) 4월 월례회의
5월	○ 5. 18.(화) 고양시 전문재활용업체 현장견학 ○ 5. 18.(화) 5월 월례회의
6월	○ 6.30.(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건)
7월	○ 7.1.(목) 7월 월례회의 ○ 7.1.(목) 도시재생워크숍 참가
8월	○ 8. 9.(월) 북가좌동 에너지사랑방 현장방문
9월	○ 9. 13.(월) 9월 월례회의 ○ 9. 13.(월) 제로웨이스트샵 현장방문 ○ 9. 25.(토) 쓰레기줍깅 행사참석 ○ 9. 30.(목) 배달시장 다회용기 사용 및 세척업체 현장견학
10월	○ 10. 20.(수) 기후위기대응 연구용역 회의 ○ 10. 26.(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기후위기대응)
11월	○ 11.6.(토) 쓰레기줍깅 행사참석 ○ 11.12.(금) 11월 월례회의
12월	○ 12. 9.(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 12. 15.(수)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연구용역] 완수일 ○ 12. 17.(금)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I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2021년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3,100,000원

☐ 지출금액 : 금2,172,500원(집행을 70%)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 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3/22	연구용역 추진관련 간담회비	진미	128,000	업무추진비
2	7/1	도시재생워크숍 참석관련 주차비지급	지에스파크	24,000	견학비
3	7/1	도시재생워크숍 참석관련 간담회비	대도식당	114,000	간담회비
4	8/9	에너지사랑방 현장방문관련 간담회비	맛있는칼국수	27,000	간담회비
5	9/13	제로웨이스트샵 현장견학 활동비	이니스프리 공병공간	134,600	견학비
6	9/13	제로웨이스트샵 현장견학관련 간담회비	배스킨라빈스	25,400	간담회비
7	9/30	배달시장 다회용기 사용업체 관계자 간담회비	로텐바우	48,000	업무추진비
8	9/30	배달시장 다회용기 렌탈업체 관계자 간담회비	돈우네	155,000	업무추진비
9	12/9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후 관계자 간담회비	일화성	148,500	업무추진비
10	12/9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토론참석자 사례비 지급	김재권등 3인	500,000	행사비
11	12/16	연구활동 정책활용 방안 논의 간담회비	선수사	175,000	간담회비
12	12/17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작비	북청사	693,000	자료집제작
합 계				2,172,500	

Ⅱ. 연구활동별 보고	9
1. 연구용역 추진	9
2. 현장방문	21
3. 대외활동	24
4. 월례회의	28

Ⅱ-1. 연구용역 추진

□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 개요

- 2019.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항목 신설
- 편성목적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
- 지원대상 :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연구용역 추진개요

구 분	연구용역①	연구용역②
용역건명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연구용역
계약업체	로컬에너지랩	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계약금액	13,500천원	15,310천원
계약기간	2021. 6. 18. ~ 10. 29	2021. 6. 16. ~ 12. 15.
과업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의회가 해야 할 역할 연구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주요 과업내용	◦ 에너지 및 그린뉴딜 관련 계획 수립현황 조사 및 분석 ◦ 기후위기 대응 중점추진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점검 ◦ 이행 및 평가를 위한 구의회 역할 연구 및 제안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 식품접객업 현황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현황 조사 ◦ 지역내 다회용기 유통 사업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분석 ◦ 배달플랫폼, 사업장, 공공(행정), 다회용품 서비스 제공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업모델 도출 ◦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치구 단위의 정책대안 및 시범사업 설계, 단계별 추진방안 제안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용역

□ **계약기간** : 2021. 6. 18. ~ 10. 29.

□ **계약업체** : 로컬에너지랩(중구 삼일대로4길 9, 대표 : 신근정)

□ **과업목적** :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의회가 해야 할 역할 연구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대문구 전역

○ 내용적 범위

- 서대문구 에너지 및 그린뉴딜 관련계획 수립현황조사 및 분석
- 기후위기 대응 중점추진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점검
- 이행 및 평가를 위한 구의회 역할 연구 및 제안
-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지속성 확보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과업의 대상

○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및 정책

○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행정체계, 거버넌스 활동내용

□ 과업의 내용

○ 서대문구 에너지 및 그린뉴딜 관련계획 수립현황조사 및 분석

- 도시계획, 지역에너지계획, 그린뉴딜계획,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분석
- 각 계획에서 제시된 중점과제 및 정책과제 실행여건 분석

○ 기후위기 대응 중점추진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점검

- 우선과제 선정 및 실행 점검지표 제안
- 서대문구 타 정책과의 정합성 및 연계 여부 점검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후위기대응센터(또는 에너지센터) 설립준비 및 운영방안 제안
- 기후위기대응 기금설치근거 및 운용방향 연구 및 제안

○ 이행 및 평가를 위한 구의회 역할 연구 및 제안

- 기후위기 대응 메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운영방안 연구
- 거버넌스 운영, 구민조직과 참여를 위한 구의회 역할 연구 및 제안
- 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역할연구 및 타당성 분석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조례 제정 및 개선과제 연구 및 제안
 - 국가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제안

□ 과업수행과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1. 6. 30.(수) 16:00~17: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연구용역 연구원, 기후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직원
- 주요내용 : 연구용역의 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일정 공유 및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의견과 방향성 제시
- 용역관련 의원제언
 - [차승연 의원]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계획을 확인하여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이삭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의 기존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추진 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센터 등 현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계획을 공유하여 연구회원들과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다.
 - [기후환경과장] 기후위기 7개 전략 29개 사업의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북가좌동 에너지사랑방(서울 스마트 에너지-비) 방문 및 연구용역 자문회의

○ 일 시 : 2021. 8. 9.(월) 11:00~14:00

○ 장 소 : 북가좌동 에너지사랑방(서울 스마트에너지)

○ 방문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연구용역 연구원

○ 목 적 : 연구원과 함께 에너지 자립마을 시설 방문하여 구 기후위기대응 연구용역
실행정책에 에너지자립 적용방법 논의 및 연구성과 공유

○ 주요내용

- 에너지사랑방 시설견학

· 시설설립목적 : 서대문구가 서울형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1호로 선정된 이후 에너지 자립의 의미를 더 널리 알리고 주민참여를 높이하고자 만든 공간

· 시설 역할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사업 홍보, 에너지자립마을 프로젝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뿐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에너지절약 사업을 기획·실천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로써 운영되고 있음

- 연구용역 자문회의

· 기수립과제 확인, 과제별 주요 내용정리 : 그린뉴딜실행계획 7대전략 39개 사업, 지역에너지계획 3대전략 14개 추진과제, 도시발전기본계획 5대목표 20개 추진과제를 건물에너지효율개선(16개 과제), 수송(8개 과제), 재생에너지(7개 과제), 교육홍보(8개 과제)로 재분류

· 평가지표 논의 : 정량적 평가 대신 정성적 평가로 각 정책을 서로 비교하여 비교적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사업대상자가 많은 사업,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검토

· 각 사업별 탄소배출 현황 파악과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권역별(지구단위) ‘온실가스 에너지 총량제’를 도입하여 배출량 및 감축량 확인 및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검토

□ 방문사진



□ 과업수행과정 : 연구용역자문회의

- 일 시 : 2021. 10. 20.(수) 15:00~16:00
- 장 소 : 이경선부의장실
- 참석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연구용역 연구대표
- 목 적 : 연구용역 준공 전 연구내용 검토 및 개선사항 논의 등
- 주요내용
 -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탄소중립 전환 마을로 변경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경정책위원회가 중간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 차를 줄이려면 다른 대체수단이 잘 발달해야 한다. 우리구 조례를 제개정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이 자치구 단위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은 구단위에서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보다 넓은 범위,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하다.



□ 과업수행과정 : 최종보고회

- 일 시 : 2021. 10. 26.(화) 14:00~16: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2층)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생방송 송출)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연구용역 연구원, 기후환경과장, 환경관리팀장
- 주요내용
 - 연구개요와 목적
 - 관련계획 분석 : 지역에너지계획, 그린뉴딜계획, 도시발전 기본계획
 -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 기반구축 과제 : 거버넌스 구성, 실행조직과 구조제안, 예산과 기금
 - 구의회의 역할 : 조례제정 및 개정 제안, 국가정책개선과제
- 용역관련 의원제언
 - [이경선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차, 공유자전거 확산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그러나 60~70대가 자전거를 타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 연구활동이 8대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용역은 끝나도 이 주제에 대해 연구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관련 부서에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차승연 의원] 탄소중립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기금이 주어져야 한다. 서대문구처럼 구릉지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따릉이 도입 또한 필요하다. 타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서대문구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 [기후환경과장] 공공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다함께 실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 개최사진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연구용역

☐ **용역건명** :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연구용역

☐ **계약기간** : 2021. 6. 16. ~ 12. 15.

☐ **계약업체** : 좋은동네연구소 협동조합

(강북구 인수봉로81길 22-6, 대표 : 송하웅)

☐ **과업배경**

- 코로나19 이후 배달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역시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외에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
-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아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전면화 되지 못했고 결국 일회용품의 사용과 관련 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배달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
- 기후위기의 도래, 플라스틱 수프로 변한 바다 등 이제 더 이상 환경보호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천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실험이 필요한 시점

☐ **과업목적**

- 본 연구는 음식배달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식기와 용기를 다회용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단위의 실효 있는 정책대안과 실행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대문구 남가좌2동 일원
- 내용적 범위
 - 대상지역 내 식품접객업 현황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현황 조사(배달용기·식기, 포장재 등)

- 지역 내 다회용기 유통 사업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분석
- 배달플랫폼, 사업장, 공공(행정), 다회용품 서비스 제공 기업(수거·세척, IT솔루션 개발 등), 소비자(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업모델 도출
-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치구 단위의 정책대안 및 시범사업 설계,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과업의 대상

- 서대문구 남가좌2동 일대 식품접객업과 일회용 플라스틱

□ 과업의 내용

- 대상지역 내 식품접객업 현황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현황 조사(배달용기·식기, 포장재 등)
- 지역 내 다회용기 유통 사업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분석
- 배달플랫폼, 사업장, 공공(행정), 다회용품 서비스 제공 기업(수거·세척, IT솔루션 개발 등), 소비자(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업모델 도출
-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치구 단위의 정책대안 및 시범사업 설계, 단계별 추진방안 제안

□ 과업수행과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1. 6. 30.(수) 17:00~18: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연구용역 연구원, 기후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직원
- 주요내용
 - 연구용역의 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일정 공유 및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의견과 방향성 제시
 - 배달시장 활성화 및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방안 논의

○ 용역관련 의원제언

- [차승연 의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회용기의 수거 및 음식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배달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반찬가게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가지고 갈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도 같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 [주이삭 의원] 남가좌2동의 업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업체들이 타구 배달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남가좌2동으로만 제한하여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시범사업을 할 때 남가좌2동 업체가 남가좌2동 주민에게 배달할 경우로 정하던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아닌 업종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이경선 의원] 다회용기를 회수할 수 있는 수거함 설치 문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도있게 연구해주길 바란다.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구정연구단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기후환경과 기후위기대응팀장] 작년에 스마트환경도시 공모사업을 위해 논의한 자료가 있으니,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배달시장 다회용기 사용 및 세척업체 현장견학

- 일 시 : 2021. 9. 30.(목) 13:00~20:00
- 장 소 : 배달 다회용기 사용업체(농가의 하루) 및 다회용기 전문 렌탈업체(뽕득)
- 방문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연구용역 연구원, 경기도(주) 직원
- 목 적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배달시장 다회용기 사용, 수거 및 관리업체 견학 및 의견청취
- 방문업체 현황
 - 농가의 하루
 - 배달 다회용기 사용업체
 -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경기도와 환경부 지원사업인 배달시장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 참여 업체
 - 코로나19 유행 후 비대면 소비문화에 따른 배달 수요 폭증으로 급증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
 - 뽕득
 - 배달 다회용기 세척업체
 - 경기 광명시에 위치. 하루 24만개 이상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척 허브(1000평) 보유
 - 현재 수도권 전역 50개 시/구, 350여개 교육기관, 구내식당,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
 - 1day 서비스 과정 : 카톡주문 -> 매일 영업시작 전 미리배송 -> 사용 후 뽕득박스 이용 수거 -> 전문세척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음식물이 있다보면 비위생적이긴 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용기를 씻어서 주기도 하는 등 고객들이 다회용기 처리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편이라 음식물 냄새가 문제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 지자체에서 위생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거는 전문 수거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1일 1회 저녁마다 문앞에 놓여진 용기를 수거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대개 경차(전기차)로 이동하거나 오토바이로 배송한다. 택배배송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식기세척 렌탈시장은 점차 확장하고 있기때문에 물류망도 구축중이다.
- 신도시는 아파트가 많으니 수거가 용이하겠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동네 거점지역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지만,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다.
- 서대문의 카페를 중심을 사업을 시도해 본다면 공유컵을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용기를 수거할 공간이 필요하고 하다. 서대문구 내에 세척장을 만들어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 표준화된 용기가 중요하다. 용기세척은 모든 용기가 가능하지만 통일된 용기를 써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앞으로 자동화 산업으로 세척을 할 예정이고 전국에 있는 관련 사업 업체들끼리 커뮤니티도 만들 예정이다.

□ 방문사진



□ 과업수행과정 : 최종보고회

- 일 시 : 2021. 12. 9.(목) 10:00~12:2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서대문구의회 유튜브 생방송 송출)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연구용역기관(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책임연구원
 - 구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
 - 관련기관 :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주식회사 뽏득 매니저, 경기도주식회사 매니저, 가좌생활상권추진위원회 위원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10 (10분)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사회 주이삭
10:10~11:40 (90분)	▶ 발제: 연구용역결과보고(유창복 책임연구원) ▶ 토론1: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김재권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장) ▶ 토론2: 배달용 다회용기의 조건 (박현민 주식회사 뽏득 매니저)	진행 차승연
11:40~12:00 (20분)	▶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	진행 차승연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춰 지역단위, 마을단위 자원순환모델 마련 필요성 증대
- 캘리포니아주의 빈용기 보증금제도, TOPUP TRUCK을 통한 일회용 플라스틱 리필, 동네컵 공유시스템, 경기도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 사업 등 검토

- 남가좌2동 현장설문조사 : 2021.9~10월동안 58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식품접객업의 1회용기 사용 인식조사) 결과 공유
- 서대문형 다회용기 순환모델 제안 : 동네 주민 중심 상점을 중심으로 다회용기사용 독려,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다회용기 네트워크 구축 기획
- 다회용기 배달의 핵심 VALUE-CHAIN
: 세척 -> 수거 및 물류-> 배달용 다회용기공급 -> 세척의 순환
- 고기능성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소재 활용한 표준화된 배달용기 개발

□ 행사사진



Ⅱ-2. 현장방문

고양시 전문재활용업체 현장방문

☐ 일 시 : 2021. 5. 18.(화) 14:00~18:00

☐ 장 소 : 청솔씨앤티(폐필름류 전문재활용업체)

○ 본점(선별장) :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153-12

○ 공장 : 파주시 광탄면 소라울1길 153-12

☐ 방 문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및 업무관계자

☐ 방문업체 기본현황

○ 생활계 폐비닐 전문선별 및 공급업체

- 폐비닐 수거협약이 체결된 고양시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전량수거하여 선별
- 국내 유일의 복합재질 재생펠렛 생산업체
- 폐비닐류 선별과 재활용 원스톱 시스템으로 시너지효과 향상
- 설비 보수/관리 전문 인력 보유로 안정성 및 신속성 확보

○ 소각 및 매립비용에 비해 저렴한 단가로 폐비닐 처리 가능

- 단순 매립·소각에서 재활용처리로 지자체의 금전적/환경적 부담 감소

○ 폐비닐 선별공정 및 재생펠렛 제조공정 특허등록 완료

○ 폐비닐 입고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가능

○ 생산품 품질향상 및 제품 개발 등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 추진

○ 폐비닐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신규품목으로 추가된 후 회수업체가 폐비닐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체로 공급

○ 최근 유가하락, 타 연료와의 단가경쟁, 환경문제 등으로 고품연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다만, 재생제품은 다양한 활용성, 저단가, 영구적 사용 등의 장점으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 주요내용

- 깨끗한 비닐일 경우 비닐처리설비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비닐류 쓰레기 자체 처리가 가능(선순환 리사이클). 비닐처리 기계는 면적이 30여 평이면 가능하고 설치 시 예산의 80프로는 환경부에서 환경지원금으로 지원해줌. 그러나 서울에서는 주민 동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가 많은 인근 경기도에 제조 공장을 설치함.
- 비닐을 분리 배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함

□ 견학사진



제로웨이스트샵 현장방문

- ☐ 일 시 : 2021. 9. 13.(월) 14:00~17:00
- ☐ 장 소 : 이니스프리 공병공간(제로웨이스트샵)
- ☐ 방 문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 ☐ 방문업체 기본현황

- 화장품공병 23만개를 재활용하여 만든 소재가 인테리어 마감재로 활용된 공간
- 세부프로그램
 - 공병수거 캠페인 : 다 쓴 화장품용기를 공병수거함에 넣어 캠페인 참여
 - 업사이클링 굿즈‘튜브짜개’ 제작 참여
 - 메이크업제품 아트드로잉 : 사용기한 지난 제품으로 환경보호 엽서제작
 - 수거된 공병(페플라스틱)을 분쇄하여 재가공하는 시스템 참관

☐ 방문사진



II-3. 대외활동

제1회 도시재생 정책워크숍 참석

- ☐ **참석일시** : 2021. 7. 1.(목) 12:30~18:30
-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 ☐ **참석목적** :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정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의회중심의 도시재생 4.0 정책방향 논의
- ☐ **세부일정**

시간	일정
12:30~13:00	- 개회(국민의례 및 참석의원 소개)
13:00~13:40	- 특강(도시재생정책사)
13:40~14:20	- 특강(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14:20~15:00	- 특강(도시재생 정책사와 도시재생 뉴딜 현황)
15:00~16:00	- 기초발제(기초광역의회 중심의 도시재생 4.0 정책방향)
16:00~18:00	-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간담회

☐ 워크숍 주요내용

- 도시재생 정책 전개와 국가 지원체계의 변화, 전국 도시재생 뉴딜 추진 사례와 시사점 강연
-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특성의 이해
 - 마중물 지원 종료 후 자생적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유형 및 가점항목 단순화·특성화, 성장단계별 연속적 지원체계,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등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
-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위해 의회가 참여하는 정책방향과 역할
 - 역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4.0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기초·광역의 회와 국회’, ‘(행정)기초·광역 지자체, 중앙부처’, ‘주민공동체와 자생·시민단체’의 기본 3개 축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기초의회 중심의 풀뿌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부문·영역의 종합적 도시재생 참여와 지원방안 수립

□ 도시재생 정책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

[이경선의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 보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공론화, 진단·평가 필요

[차승연의원]

- 도시재생 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희망지사업 단계 지원 필요
-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재단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익의 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성 확보 필요

[주이삭의원]

-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를 통해 대표성을 가지고 도시재생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기초의회 연구단체 등을 통한 의회 참여 활성화, 사례 공유 필요
- 구역계 선정 시 객관적 기준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필요
- 서울지역 기초지자체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

□ 워크숍 사진



우리동네 환경정화 줍깅 캠페인

☐ 일 시 : 2021. 9. 25.(토) / 11.6.(토) 15:00~17:00

☐ 장 소 : 홍제천 일대

☐ 참석자 : 차승연, 주이삭, 이경선의원, 대학생(S-지니어),
지역주민(에코캠페이너, 그린랜턴) 등 30명

☐ 주 최 : 서대문청소년센터, S지니어 공동주최

☐ 내용

- 관내 쓰레기 줍기

- 구역을 3코스로 나누어 연구회원, 청소년, 지역주민이 함께 환경정화 활동 참여
- 활동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쓰레기 줍기 후 분리수거로 환경보호 실

- 주민 대상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진행

- 캠페인 참여유도 스티커 부착 활동
- 시민대상 O,X 퀴즈를 통해 환경보호 실천방안 홍보

- 제로웨이스터의 하루 V-LOG 제작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30	· 안전교육, 코스 소개	
15:30~16:30	· 코스별 쓰레기 줍기 및 캠페인 진행	연희동, 홍제천 일대
16:30~16:40	· 쓰레기 무게 재기	
16:40~17:00	· 분리배출 실행	

☐ 행사사진



II -4. 월례회의

☐ 월례회의 개최실적 : 총 6회

☐ 주요 논의내용

일시	논의내용
3.15.(월)	- 2021년 연구활동계획 논의 · 연구활동 3년차를 맞이하여 기존 활동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추진 · 연구용역과 현장탐방,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 논의 : 2개 분야 (기후위기, 쓰레기) - 현장견학 지역 및 일정 논의 · 두바퀴컴터, 재활용정거장 등 4월 중순 이후 방문예정 - 기후위기 관련 자료 수집 방법 공유
4.20.(화)	- 현장탐방활동 계획 논의 · 일시 : 5/18(화) 14:00 · 장소 : 은평 쓰레기사업장, 알맹서점, 재활용전문업체 등 · 목적 : 쓰레기 처리실태 확인 및 재활용업체 분류작업 현장 견학 - 연구용역 주제 및 준비사항 논의 · 용역1: 남가좌동을 중심으로 한 장례식장 재활용기 절감방안 · 용역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연구 · 4/30(금)까지 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5.18.(화)	- 현장탐방 후기공유 · 우리구 재활용품 처리 현황 및 재활용용기 등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한 방법 논의 - 쓰레기줍기 행사 추진 논의 · 월1회 주민과 함께 홍제천변 등 쓰레기 줍기 행사를 위한 계획 구상 - 타 의회와의 연구활동 네트워크 조성 추진 · 기후위기대응이나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는 타 의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일시	논의내용
7.1.(목)	- 쓰레기줍기 행사 세부일정 논의 · 시기 : 2021.9월 · 장소 : 홍제천 주변 · 대상 : 연구단체 회원 및 관내 주민 · 내용 : 쓰레기 줍기, 다회용기 사용 확대 홍보 등 - 도시재생 관련 현장방문 일정 논의 · 일시 : 2021.8월 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일시 조정) · 장소 : 충남 공주 어르신놀이터 · 목적 : 충남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지를 방문하여 현장견학 및 시설체험 타지역 우수사례를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의회 연구단체와의 연계활동 추진 논의 · 도시재생 및 도시생활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타의회 연구단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구성 준비 (7.13. 의원 연구단체 관련 협조요청 공문발송)
9.13.(월)	- 제로웨이스트샵 현장방문 후기 공유 · 재사용이 가능한 화장품 용기 확대 · 화장품 용기의 다양한 활용방안 - 쓰레기줍기 행사 준비 · 일시 : 2021.9.25.(토) 15:00~ · 장소 : 홍제천 및 연희동 일대 · 대상 : 연구회원 및 서대문거주 대학생, 주민 등 함께 참여 · 세부행사 : 환경정화 쓰레기 줍기, 환경지킴이 캠페인 등 - 다회용기 사용 지역 현장방문 일정 논의 · 일시 : 2021.9.30.(목)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광명시 · 대상 : 배달시장 연구용역 연구원 및 협치공유 관련 주민 등 10여명 · 목적 :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다회용기 사용의 장단점 파악 및 환경보존을 위한 방안 모색

일시	논의내용
11.12.(금)	-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및 방향성 논의 · 2021 연구활동 정리 · 연구회원별 활동수기 수록 -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논의 · 일시: 2021.12.9.(목) 10:00 · 장소: 의정연구실 · 개최방식: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관련기관 사례발표

☐ 회의사진



Ⅲ. 활동후기	35
---------------	----

도시혁신연구회 활동을 마치며

차승연 의원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혁신연구회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연구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단년 방식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아닌 다년 방식의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마련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다수의 연구용역도 실시했습니다.

첫 시작의 문을 열 때, 5명의 의원이 함께 했지만 현재 3명의 의원만 도시혁신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쉽지만 8대 처음으로 도시혁신연구회를 만든 이후 현재 2개의 연구회가 추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를 넘어 타 자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와도 교류를 확대하면서 의원연구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시기적 요인으로 거기에 이르지 못함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시혁신연구회’는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과 도시에서의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자원순환, 기후위기대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하고 실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도시혁신연구회 차원으로 먹거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함은 아쉽지만 각자의 의정활동으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도시혁신연구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대문구도 낡은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첫 도시재생사업지 중에 ‘신촌’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천연충현’,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고, 좌원상가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제1동, 북가좌2동 희망지사업은 끝내 선정되지 못하고, 참여한 주민들의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정책에도 ‘유행’이 있는 듯합니다. 전면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지향은 다시 회귀하는 모습도 보이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던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명사 강의, 현장방문, 토론회, 주민간담회, 교육과정 참여 등의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느꼈는데, “빨리빨리”와 부동산의 자산가치 급등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회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은 국외출장을 갔던 스웨덴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경험, 연구회 주최로 간 전남 순천의 도시재생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따라 홍제1동에 신기한 놀이터를 조성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전거 정책이 도시재생의 최우선순인 것을 보고 서대문구의 친환경교통수단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 전기자전거 구입 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도시재생의 성과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 해설사도 양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배달다회용품 사용 방안과 서대문구 기후위기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다보니 연구회 역시 도시재생에는 조금 소홀한 면도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게 도시재생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 참여한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에서 전국에서 도시재생정책에 대해 고민하시는 의원님들과도 교류하면서 서대문구 도시재생 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주거공간만 바뀌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모든 생활문제가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대문구부터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자원순환]

쓰레기 문제는 인천 매립지 반입 종료 시점이 가까워 오므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생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자원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회는 올해 쓰레기 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활동했습니다.

연구용역으로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에 방문하여 배달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 세척장 등을 방문해서 서대문구 적용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남가좌2동에서 실시할 것을 설정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접수하면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다시금 경기도 사례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수도 불러서 서대문구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실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살펴 볼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추후 자원순환을 위해서 꼭 실현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연구회는 고양시 폐필름류 전문재활용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폐비닐이 수거되어서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어서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과정 중 ‘서대문구 Ecosystem - 폐비닐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공병을 재활용하여 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한다거나 튜브짜개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샵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청소년센터 S지니어와 연구회 공동주최로 ‘줍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문제입니다. 서대문구는 난지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연구회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 쓰레기장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재활용정거장 현장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차원에서 이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이삭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 자원순환과 관련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 및 개선안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전환, [기후위기대응]

작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활로 깊숙이 들어 왔습니다. 연구회는 도시재생, 쓰레기, 먹거리 등의 도시생활문제 개선과 더불어 에너지 문제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탄소중립과 연결되는 문제라 사실 자원순환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대응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현재 30개가 넘는 에너지자립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수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너지자립혁신지구 및 산자부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북가좌2동 스마트에너지집 현장방문도 하면서, 서대문구의 탄소중립정책, 기후위기대응정책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연구회 연구용역 주제로 정한 이유도 기후위기대응이라는 거대한 정책방향을 수행하기 위한 ‘서대문구 기후위기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회는 연구용역 수행에 의견교환을 하면서 구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환경 관련 조례 TFT를 구성하여,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연구회의 지난 활동의 축적된 결과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가 더 세밀히 신경 쓰고, 전 구민의 생활캠페인으로도 진행해야 할 기후위 기대응 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삶의 방식, 즉 모든 것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장만 하고 다그치기 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연구회도 함께 고민할 지점입니다.

급작스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왕성한 연구회 활동을 펼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중심의 학습하고 실천하는 연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는 꺾인 적이 없습니다. 연구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의회가 의원 연구활동에 적합한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9대에 새로이 의원연구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서대문구의회와 함께 호흡하는 연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년에 주민들과 도시혁신연구회가 걸어온 길과 함께 한 의원님들의 성장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성장이 되도록 활동을 꺼내서 보이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학습하고 실천하는 연구회 기조가 다른 연구회로 이어져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도시혁신연구회의 활동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쏘아올린 작은 시범사업이 기대되는 이유

주이삭 의원

올해 도시혁신연구회는 기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보다 집중해왔던 연구보다 기후와 환경 이슈에 집중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장 방문을 진행해왔다. 또한 집행부와의 협의는 물론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례통과가 된 성과가 있었던 점에서 그 어느 때의 연구회 활동기간 중에서도 올해는 참 의미한 해였다고 평가한다.

본 의원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처음 참여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혁신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소 및 다회용기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량 절감을 고민해왔었다. 이번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에 관한 연구’는 그 고민의 차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실험적인 내용이었다.

실제 경기도 화성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다회용기 사업 참여업체를 방문하였고, 다회용기 세척업체도 방문했을 때 실제 사업화를 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엔 수거와 세척 자체에 대한 기반시설과 산업환경도 구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용역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때 관련 민간 분야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 ‘용기’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지점을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수거와 세척에도 용이하며 다양한 배달음식이나 상품들에 맞는 규격화된 용기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배달산업에서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의 민관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다회용기 사용을 더욱 장려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다회용기 활용을 통한 1회용품 쓰레기 저감대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서대문구의 책무로 추진하게끔 조례를 도시혁신연구회 의원들이 공동발의(이경선 의원 대표발의)하였다.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정되어있는 조례지만, 단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넘어 22년도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를 거쳐 1회용품 줄이기 차원의 시범사업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연희동 소재의 어느 카페가 자체 다회용컵을 제작하여 테이크아웃으로 활용하게끔 추진하는 현장 의견을 듣고, 연구차원에서 여러 업체 현장을 다녀온 것은 이런 정책사업을 제안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내년엔 연희동 서대문구청 주변 민간카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수거-세척-재사용’의 과정을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부터 스타벅스와 협업하여 시청 일대 스타벅스 지점들과 다회용컵 활용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 구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 조그마한

실험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실험과 동네 카페들과의 실험이 함께 성공하길 기대한다.

처음 출마할 때, 주민 여러분들께 쓰레기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농담도 섞으며 말이다. 폐기물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변화를 꿈꾼다.



도시혁신연구회 2021년 활동을 마감하면서..

이경선 의원

올해 2021년 여름은 2018년의 폭염 기록을 경신하며 한반도의 기후 기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이상고온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며,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문제는 탄소배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공통의 약속을 만들기 시작했고, UN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탄소배출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곧 기후변화로 귀결된다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에 불과한 단기간 동안 인류는 지구의 지배자라는 위상을 한층 공고히했지만 산업혁명이 편리성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소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인류는 원자력, 풍력,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찾아 헤매었지만, 당장은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완벽히 대체할만한 기술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했던 에너지를 줄일 수 없다면 생활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 등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많은 물품의 생산이 탄소배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는 지구온난화를 한 층 앞당기고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탓에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역으로 우리 개개인, 공동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배출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배출과 조정이 국가 간의 범주라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은 개인, 좀 더 넓게는 공동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행정법규 상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수준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의 폐기가 아닌 재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전국단위, 국가단위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자체들은 일찍이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 재활용 정책들을 실시해 있으며, 저희 서대문구의 또한 여러 조례제정과 자원재활용 사례와 의의, 시사점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자원의 순환을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령의 주요내용이 대량생산과 소비, 폐기 등 사회경제 구조에 맞춰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일상생활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다시금 현실적으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자체들은 줄이기,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장 지도, 관련 협의회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또한 자원순환기본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외에 환경과 자원 관련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에 각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과 분리배출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계상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59% 수준이고, 전문가 추산 실질 재활용률은 이보다 한참 낮은 40%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자원 재활용을 위한 조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질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봅니다.



우선 현재 서대문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환경, 자원재활용 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 2) 환경기본조례
- 3) 폐기물관리 조례
- 4)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5)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6)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7) 에너지 기본조례
-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조례 등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10년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기초자치단체장은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기본계획의 골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중장기 정책 방향제시 정도이며, 서대문구는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함과 동시에 법령과 계획에 맞추어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 역시 1회용품 줄이고자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안하여 지난 9월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늘어나면서 폭증한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 홍보실시,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관련 업체와의 협력 등을 담았으며, 자원순환기본법령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자원 재활용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면,
자원순환기본법과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들의 방향은 크게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서대문구 역시 이를 토대로 ▲폐기물 발생감량 ▲자원순환이용률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해서는

- ① 1회용품사용줄이기: 1회용품줄이기 조례
- ② 이중포장, 다중포장 단속: 재활용촉진법에 근거
- ③ 분리배출 표시 개선 미적용 제품 단속 강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④ 단독주택 지역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 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 ⑥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기준 조례 제정: 우리 서대문구는 “폐기물관리 조례” 내용 포함

⑦ 불법투기 상습지역 감시강화 및 입양관리제 추진

⑧ 음식물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확대

다음으로 자원순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①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및 요일배출제 관리 강화

② 거점 배출지역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함 설치

③ 재활용센터 리엔업플라자 조성

④ 재활용제품 구매 초진을 통한 재활용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근 본 위원이 적극 추진하여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배달과 함께 사용량이 폭증한 아이스팩을 수거,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과제 선행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원재활용을 위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이미 명백합니다.

첫째,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명확한 구분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술한대로,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물품과 버려야 할 물품 등을 공공에서 먼저 정리하고 구분하여 안내, 홍보하기만 한다면 주민들은 이를 잘 지켜나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색과 유색 페트병의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정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 내 업체들을 계도해야 합니다. 자원 재활용의 시작은 ‘잘 배출하는 것’이 아닌 ‘만들지 않는 것’에 있으며, 배달용기는 다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쉬운 용품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를 잘 이행한 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스팩의 사례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관이 주도하여 수거 후 세척, 지역 내 업체에 전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거점지역을 마련하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탄소배출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일원화 등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일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를 전달하여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재활용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텀블러만 봐도,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탄소배출이 적을 것이라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리 텀블러는 최소 15회 이상, 플라스틱 텀블러는 17회, 세라믹은 최소 39회, 그리고 스테인레스 텀블러는 최소 1,000회 이상을 사용해야 일회용 종이컵보다 환경보호 효과를 낸다고 하며, 이는 에코백 같은 친환경 제품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회사나 집안을 둘러보면 받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홍보용 텀블러, 서랍 속에 있는 에코백 무더기를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명목상의 환경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주민, 국민들의 분리에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 도달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지만, 실제로 플라스

틱은 소재에 따라 20여개에 달하는 종류로 나뉘며, 이를 각각 골라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보니 아무리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다 한들 수십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산에서 이를 수작업으로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배달용기의 경우 보통 내열성이 높고, 비닐 등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안을 만들어 봤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계속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합니다. 공동체 단위의 정책들은 분명 필요한 일이고, 첫걸음이긴 하나, 그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니 탄소배출의 감축이나 소재의 통일성은 큰 틀에서 국가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2021년 저회도시혁신연구회에서는 미시적으로나마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해법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용역과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봅니다. 기성세대는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 손주들은 당장 기후변화를 눈앞에 맞닥뜨리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개인, 공동체, 지자체와 국가가 뚜렷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환경문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생각하며 지난 4년 동안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도시재생 및 도시생활문제 개선 문제와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와 도시에서의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도시혁신연구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참여하고 고민함으로써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저희 연구회 활동 성과물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서대문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물로 자리 잡아지기를 바라며, 알차고 보람찼던 연구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V. 언론보도	55
-----------------------	-----------

□ 주요 보도내용

서대문인터넷뉴스 2021.07.19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차승연), 도시생활문제 개선, 해결 방안은?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차승연)는 6월 30일(수)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도시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와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등 총 2건의 연구용역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에 현장에는 도시혁신연구회 차승연 대표의원과 주이삭 의원(간사), 이경선 의원은 물론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와 청소행정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용역이 가진 목적과 연구 방법, 전체 수행 일정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주제는 기후위기와 일회용품 사용이라는 우리 사회 직면한 환경문제를 다룰 예정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과 구의회의 역할을 꼼꼼히 연구 할 예정이다.

도시혁신연구회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 주민들이 도시에서 일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실질적인 불편과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시행 중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관내 쓰레기 배출 현황과 처리 사항을 전문적으로 분석, 골목단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 및 쾌적한 골목만들기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한 단계 나아가 배달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 서대문 배달시장을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찾고자 한다.

물론 이는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할 만큼 커다란 과제이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움직임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가 가진 특성과 문제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의회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개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이번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차승연 대표의원은 “기후위기와 일회용품 사용이라는 문제는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또한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구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서대문구만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서대문구의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실천을 이끄는 길을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www.sdm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4459>

이뉴스투데이 2021.08.17.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에너지자립 주민거점 공간 찾아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도시혁신연구회 대표 의원은 지난 9일(월) 북가좌2동에 위치한 ‘서울 스마트에너지-ㄴ’를 찾았다.

‘서울 스마트에너지-ㄴ’는 서대문구가 서울형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1호로 선정된 이후 에너지자립의 의미를 더 널리 알리고 주민참여를 높이하고자 만든 공간이다.

이에 이날 현장에는 차승연 도시혁신연구회 대표의원과 주이삭 의원(간사), 이경선 부의장이 모두 참여해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특히 현재 연구회가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연구를 진행 중인 ‘(사)로컬에너지랩’과 함께 시설이 가진 의미와 역할은 물론 기후위기대응 실행 정책에 에너지자립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실제 ‘서울 스마트에너지-ㄴ’는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부터 에너지자립 마을의 프로젝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까지 에너지자립을 위한 서대문구만의 각종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또, 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모여 각종 에너지자립 사업을 만들고 소통하며, 직접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기획·실천하는 지역공동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관내 에너지자립마을들의 성과와 의미를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이 진행

중인 에너지절약 사업,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에너지혁신지구 사업을 더 널리 알리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혁신연구회는 현장 방문에 이어 ‘(사)로컬에너지랩’ 연구진과 만나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구용역 1차 자문회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분석 해야 하는 관련 사업 확정, 평가지표 항목 논의 등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차승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스마트에너지-네트’의 실질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활동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에너지자립을 위한 주민 거점공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의회 역시 다양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692>

시민일보 2021.10.6.

서대문구의회,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의결

이경선 부의장 대표발의 "쓰레기문제 해결 첫 걸음"



▲ 제로웨이스트샵을 방문한 이경선 부의장(가운데)과 주이삭, 차승원 의원이 플라스틱 용기 활용과 다양한 재활용법을 체험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특히 이는 이 부의장(대표발의)과 주이삭, 차승연 의원이 뜻을 모아 함께 발의한 조례로 더 의미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폭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의 적극 노력을 명시 하는 한편,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부터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업체와의 협약 등도 담았다.

이는 지역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은 물론, 나아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부의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자 환경보호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일이다"며 "이 조례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 부의장과 주이삭, 차승연 의원은 현재 도시혁신연구회로 활동하며, 쓰레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는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 실질적 정책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 지난 9월14일에는 연구회 의원 전원이 화장품 공병을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제로웨이스트샵을 방문, 플라스틱 용기 활용과 다양한 재활용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5053548309>

이뉴스투데이 2021.10.24.

기후위기대응 과제 주민과 공유한다!... 도시혁신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실시간 중계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 정책과제’ 연구용역 완료
연구용역 결과, 실시간 중계 해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대표 차승연 의원은 오는 26일(화) 오후 2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연구회는 로컬에너지랩에 의뢰,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연구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 주민들 앞에서 최종 보고하는 자리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행사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이다.

온라인 실시간 중계는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생방송 부분에서 오는 26일(화) 오후 2시부터 실시간 중계 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도시혁신연구회 대표 차승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과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많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물론 향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모두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790>

매일신보 2021.11.2.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배달 다회용기 도입 사례 나서

경기도 다회용기 도입 시범 사업 현장 찾아…서대문구 도입 방안 모색
현재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 연구용역 진행 중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는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배달 다회용기 사용’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관내 도입 여부를 살폈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차승연)는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배달 다회용기 사용’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관내 도입 여부를 살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회는 현재 배달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인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물론 사업에 동참 중인 업체,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과정 등 운영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환경부, 화성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녹색연합 등은 배달특급 가맹점을 활용한 다회용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지난 6월부터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구회는 먼저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농가의 하루'를 방문, 배달 어플을 통한 주문과 배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다회용기 배달을 시행 중인 업주가 가진 다양한 의견과 장점, 개선점, 사용 소감 등을 전해 들었다.

또, 이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 준비 과정부터 참여업체 모집, 홍보,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이어서 수거와 세척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 세척 과정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부터 배달 어플, 홍보, 용기 재질, 쓰레기 처리 문제, 각 단계별 이해관계까지 꼼꼼히 묻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서대문구에 배달 다회용기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준비와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내 사업도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도시혁신연구회 차승연 대표의원은 “배달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자 민관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큰 과제이다” 며 “서대문구의회는 다회용기 사용 도입을 위해 주민들과 더 밀착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71580>

V. 참고자료	65
---------------	----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이경선의원, 2021. 9.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 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이삭의원, 2022년 입법예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거지"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란 건물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의 벽·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쉼터 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3.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4.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공사비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 구성) ①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문단의 위원으로 건축·시공·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수리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 선정
2. 방수·결로·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3.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4. 균열·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자문단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5분발언

■ 차승연의원, 2021. 11. 11. 제276회 제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름도 어려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이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발의해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환경기본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에너지 조례 등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구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을 뒷받침할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0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 친환경 교통 확대 등 서대문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대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올해 4월에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대덕구 조례를 모델로 서대문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서대문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에서 이야기하는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해서 분석,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 5월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했

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는 틀만 결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운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냥 정부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입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준비되지 않아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의 경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개념을 혼동하고 적절한 적용을 하지 못해 매년 의회에서 지적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서대문구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영향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한 대덕구의 연구용역을 보면 명확하게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감축하는 사업은 ‘감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배출’로, 온실가스의 현저한 감축 및 배출을 모두 유발하는 사업이거나 물품구매, 행사진행 등 기존 제품 대신 친환경 제품 구매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혼합’으로, 사업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하거나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분류에 따른 우리 구 추진사업의 사전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지침서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량적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부서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성인지예산의 모니터링, 평가, 개선이라는 환류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성인지예산 운영협의체’를 설치한 것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 도입 전에 탄소감축 인식 제고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해를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의 교육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 10년의 역사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주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에 주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따른 설명회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예산을 심의하지만 우리의 준비부족으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기에 앞서 말씀드린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잡고 내년 추경예산에 환경생활국 예산이라도 시범운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선행하고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지침과 우리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느 곳보다 자신감 있게 도입했으면 합니다.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쉬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대문구 Ecosystem – 폐비닐 자원순환체계 구축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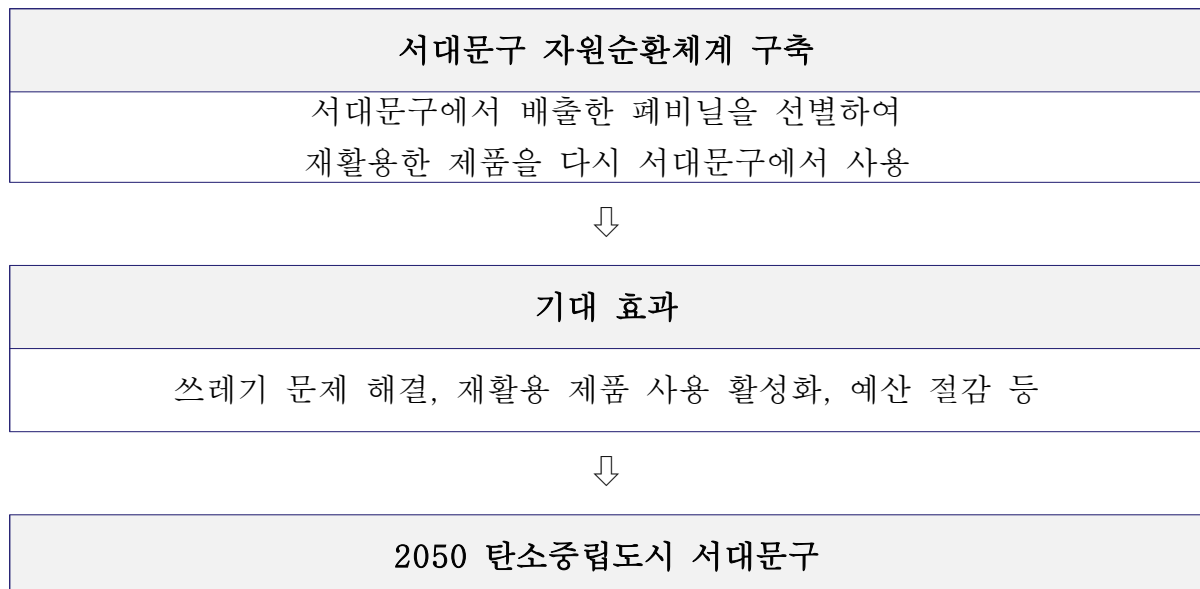
■ 차승연의원, 2021. 5. 31.

Policy goal : 정책목표

○ 서대문구에서 배출한 폐비닐을 선별하여 재활용한 제품을 다시 서대문구에서 사용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

- ‘서대문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배출→수거→선별→1차처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 마련
- 1차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펠렛을 2차 가공업체에 판매하여 만들어진 재활용 제품의 일정량을 서대문구에서 매입하도록 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듦

○ 쓰레기 문제 해결, 재활용 제품 사용 활성화, 예산 절감 등의 기대효과로 서대문구 2050 탄소중립정책 실현



1) ‘도시혁신연구회’ 고양시 폐비닐 전문 재활용업체 현장견학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한 내용임

Problem : 해결하고 싶은 지역문제

○ 정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²⁾

- 폐기물 발생 계속 증가, 경기침체·유가하락 등으로 재활용시장 침체, 폐기물 처리시설 포화 등 자원순환 쏠 과정에서 한계점 노출

- 2021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원칙
- 2022년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 2022년 지자체 공공책임수거 시행
-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 서울시 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³⁾

-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페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
- 2020년 7월에는 전국 아파트에서, 2021년 1월엔 전국 단독주택에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의 혼합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저하 : 페비닐이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되어 2차 오염, 선별장 처리능력 한계 등으로 잔재율이 50%에 달하고 페비닐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
-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80%)은 높은 편이나 타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워 고품질 페페트병은 대부분 일본 등에서 수입 : 국내 페페트병의 품질을 높여 페페트병 수입 최소화 필요

⇒ 서대문구 쓰레기 문제 해결 초점. 특히 '페비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제안코자 함.

- 서대문구의 쓰레기 문제도 타 지자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쓰레기 문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자 생활실천이 필요한 사항
- 더구나 201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는 서울시에 당면한 현안이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에 따라 해결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함

2)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0923. 정부 관계부처 합동

3) "2월부터 '비닐, 투명 페트병' 따로따로 버리세요." 서울시 2020년 01월 28일 보도자료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66482>

- 서울시의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폐페트병 재활용에만 집중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고, 평상시에도 사용량이 많았던 페비닐의 재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도 시행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함. 따라서 ‘페비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Current state : 서대문구 쓰레기 현황

▣ 생활폐기물 발생량(최근 5년)⁴⁾

(단위 : 톤)

구 분	계	일반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2016년	79,594	37,822	22,936	13,237	5,599
2017년	77,274	37,766	21,603	12,776	5,129
2018년	79,887	39,410	21,213	13,698	5,566
2019년	80,508	40,815	20,688	13,881	5,124
2020년	83,030	40,080	19,228	16,958	6,764

- 모든 쓰레기양 꾸준히 증가
 - 특히 2020년 재활용, 대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띄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배달시장 확대, 인테리어 제품 판매 증가)
 - 페비닐의 경우 재활용으로 처리되지만, 오염되거나 분류처리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도 있음
- ▶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려우며, 세밀한 분류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함

4)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

■ 폐비닐 등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최근 5년)⁵⁾

(단위 : 톤)

연도	반입량 총 계	폐비닐	종이류 (종이팩 포함)	플라스틱 (PET포함)	금속캔	유리병	스티로폼	기타 (고철등)	잔재물	비고 (계약업체)
2016년	13,237	7,223	320	361	533	416	180	-	4,204	현대자원
2017년	12,776	8,258	369	413	331	475	207	279	2,444	현대자원
2018년	13,698	9,733	440	487	390	560	244	329	1,514	현대자원
2019년	13,881	10,039	456	503	402	665	164	339	1,313	현대자원
2020년	16,958	4,384	2,767	2,442	548	775	193	1,399	4,449	금호자원

※ 혼합재활용품 반입에 따른 성상별 선별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재활용품 판매단가 추이, 업체별 시설장비 및 처리현황에 따른 주력 선별품목,
코로나19 현황 등에 따라 선별량 일부 차이 있음.

(2020년 업체변경 : 현대자원 → 금호자원)

■ 연간 폐비닐 처리비용(최근 5년)

(단위 : 원/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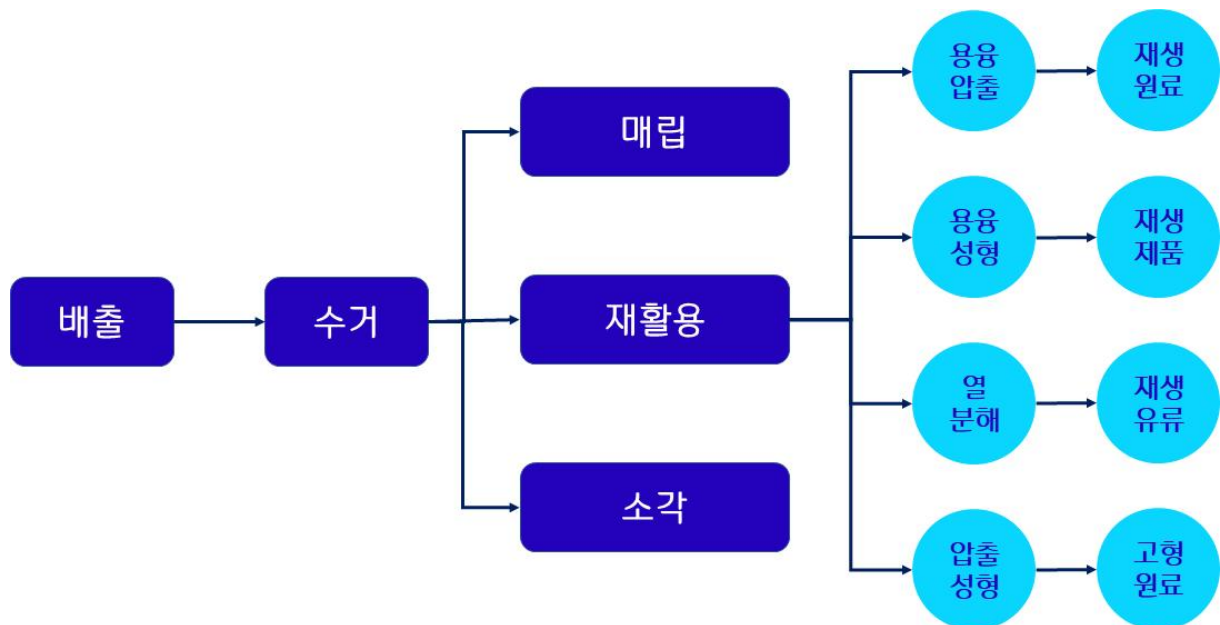
연도	재활용쓰레기 톤당 처리단가	폐비닐 발생량	폐비닐 처리비용
2016년	50,000원	7,223	361,150,000
2017년	58,000원	8,258	478,964,000
2018년	89,000원	9,733	866,237,000
2019년	118,000원	10,039	1,184,602,000
2020년	93,714.2857원	4,384	410,843,428

5)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

- 2020년 선별·처리업체 변경으로 폐비닐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서울시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잔재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선별·처리업체의 능력으로 보이며, 개선할 필요 있음. 그럼에도 잔재물량 증가의 주범인 폐비닐의 깨끗한 분리배출이 되어야 함
- 폐비닐 처리비용을 단순계산하면 최고 12억원 정도의 비용 투입됨. 분리배출하지 않았거나 오염된 비닐이 일반쓰레기로 혼입된 현실을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음.

Ecosystem : 서대문구 자원순환체계 구축

■ 일반적인 폐비닐 처리 과정



- 수거된 폐비닐은 보통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재활용을 할 경우 용융압출로 재생원료(펠릿), 용융성형으로 재생제품을 생산하거나,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류를 뽑아내고 압출성형으로 고형원료를 만들어냄

■ 서대문구 재활용폐기물 처리 과정⁶⁾

○ 단독주택, 상가 및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 : 공공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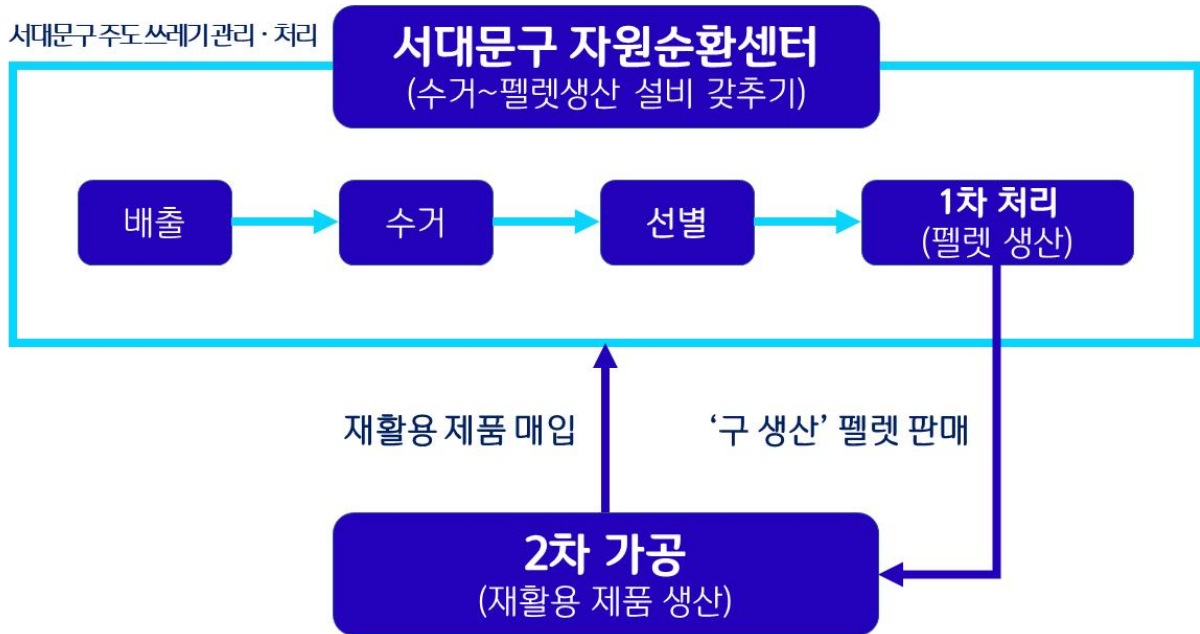
배출	수거	선별·처리
동별 배출요일에 따라 주 3회 수거	수집·운반 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서부/ING/서울환경)	선별·처리업체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 용역 : 금호자원)
18시 이후 내 집 앞 배출	혼합재활용품 수거 후 선별업체까지 운반	- 혼합재활용품을 성상별로 선별, 잔재폐기물 처리 - 선별품목은 업체에서 압축 등 처리 후 최종 재활용업체 등에 판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환경부)」 등에 따라 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판매 계약

- 서대문구는 페비닐을 배출하면 수거업체(서부/ING/서울환경)가 혼합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처리업체(금호자원)에 운반하고, 이후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압축처리 후 최종 재활용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가 마무리 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면 자체적으로 재활용업체와 수거·판매 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수 있음
- 서대문구의 페비닐 처리과정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수거·선별·처리 비용), 재활용 판매로 인한 수익발생 대책은 없음
- 따라서 수거 및 선별·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는 생길 수 있으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분리배출에 대한 고려는 부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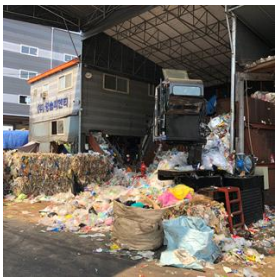
6)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

■ ‘서대문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제안



○ 서대문구에 수거~펠릿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자원순환센터 건립

- 관내 발생 쓰레기(폐비닐)를 대행업체(수거/선별·처리)를 통해 처리하기보다 서대문구가 종합적인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처리할 필요가 있음.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책임에도 부합하는 방향
- 첫 번째 과제로 폐비닐 처리에 집중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갖추고, 다른 쓰레기 처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대문구 (폐비닐) 자원순환센터’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한 후 용융압출로 재생원료인 ‘펠릿’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자원순환 원스톱체계 구축

1 선별	2 용융압출	3 펠릿생산	4 재생제품
			

○ 서대문구와 2차 가공업체(재활용 제품 생산) MOU체결

- 서대문구 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제품의 원료가 되는 ‘펠릿’ 생산까지 하고, 2차 가공업체에 판매하여 재활용 제품이 생산되도록 함

- 폐비닐을 재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활용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재활용제품의 경우 판매처가 불안정하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라인을 각각 둘 수 없으므로, 서대문구는 1차 펠릿 생산까지만 하고,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서대문구 생산 펠릿 판매

- MOU의 내용은 2차 가공업체가 구매한 서대문구 생산 펠릿으로 만든 재활용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서대문구에 조달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서대문구에서 활용 가능한 폐비닐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도록 업체와 협의할 수 있음

※ 폐비닐 재활용제품 예7)

- 우리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라면봉지, 빵 봉지, 일회용봉투 등의 비닐(필름) 포장재는 가로수 보호판, 수출용 함지박, 인삼 지주대를 비롯한 토목, 건축 자재 등의 성형제품으로 생산 가능



7) 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171109 재활용제품 카탈로그



○ 현실적 가능성

-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과 수거·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경우, 관내 부지를 확보하여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 지하수 사용 여부, 폐비닐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설비가동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반대가 예상되므로 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님
- 쓰레기 처리 시설의 지화화, 집진기 등 문제해결 설비의 발전 등으로 문제 발생 최소화 방안은 있음. 또한 여러 사정으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관내 적합한 부지도 있음

“서대문구에서 배출한 폐비닐을 재활용한 제품을
다시 서대문구에서 사용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

○ ‘친환경도시 서대문구’ 위상 확립

- 쓰레기 정책 민관협치 가동
 - 배출을 줄이고, 잘 분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민관협치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 자원순환 홍보관 및 현장 교육장 운영
 - 폐비닐 선별과 펠렛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자원순환 필요성 체감
 - 폐비닐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률을 수치로 알 수 있는 현황판 제작
 - 다양한 폐비닐 재활용제품 소개로 재활용 필요성 강조

○ 구 책임 자원순환체계 구축

- 매립 쓰레기양 감소 및 자원 재활용률 상승
- ‘재활용쓰레기 수거중단’ 등 주민 불편문제 사전예방

○ 자원순환경제 효과 발생

- 지역 일자리 창출
 - 분리배출 관리, 수거, 선별·처리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 일자리 발생
- 펠렛 생산비 감소
 - 쓰레기 유통거리가 짧아지고,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해서 펠렛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음
- 제품생산업체와 winwin전략
 - 구 생산 펠렛 판매처 확보, 업체는 재활용제품 수요처 확보
 - 일반제품과 재활용제품 사용차액에 따른 비용 절감

Essential point : 올바른 분리배출

- 비닐 사용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최소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꼭 필요함
- 특히 음식물 접촉이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낸 후**, 부피를 줄여서 투명봉투에 담아 분리배출일에 내놓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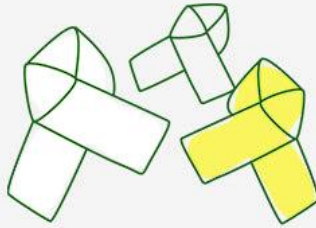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비닐 분리배출법



비우고 행구기



부피 줄이기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출처 : 한화토탈 공식블로그 <https://hanwhatotal.tistory.com/433?category=851449>>

□ 참고자료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0923, 정부 관계부처 합동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225, 환경부(폐자원관리과)
- “2월부터 ‘비닐, 투명 페트병’ 따로따로 버리세요.” 서울시 20200128 보도자료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66482>
- ‘고양시 자원순환센터 설립 사업제안서’, 2020년 12월, 고양시 재활용협동조합
- ‘Wannabe 성동, 생활계 폐비닐 순환생태계 구축방안’
- 뉴스핌 2020121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18000630>
- 한화토탈 블로그 <https://www.chemi-in.com>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